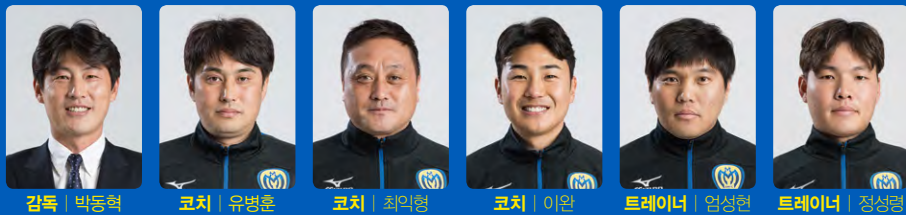


COACHING STAFF



GK



DF



MF



FW



NEXT HOME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안산 그리너스

K LEAGUE 2 | 32R

2018. 10. 14(일). 17:00 이순신 종합운동장

MATCH DAY MAGAZINE | VOL. 14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30R

2018. 9. 29(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수원 FC

여섯 전사들의 이구동성, “아산, 영원히 잊지 않겠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떠나보내는 아산의 마음은 그래도 시원스럽다. 수원 FC전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되는 아산 핵심 6인방, 김종국·김현·김동철·박주원·서용덕·이주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아산에 몸담으며 팀 내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던 선수들이다. 특히 아산이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이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피치를 누비며 아산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냈던 선수들이었기에 곧 떠날 그들의 자리는 유달리 크게 느껴진다. 여섯 전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별을 앞둔 선수들에게서 심경을 들었다. 그들에게 아산은 잠시 거쳐 가는 팀이 아니었다. 축구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발판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팀이 됐다.



NO. 3 이주용 DF

“솔직히 말해서, 전역하면 정말 속이 시원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역을 해결했다는 쾌감을 느낄 거라고 여겼는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꼭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아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도 한 단계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라는 팀에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매 경기마다 아산 선수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게 된 지금은 아쉬움이 더 큼니다. 떠나지 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NO. 11 서용덕 MF

“개인적으로는 아직 전역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산에 오면서 나를 목표를 품고 있었는데 모두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상 때문에 팀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떠나더라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비 신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부상을 당했는데 결에서 응원해주어 늘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만큼 전역 후 원 소속팀에 돌아가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O. 21 박주원 GK

“전역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팀 분위기가 좋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산에 머무는 동안 팀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아산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축구를 할 수 있었고, 무사히 전역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산은 제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팀입니다.”



NO. 6 김종국 MF

“정말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날이 오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아산에 입단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 팀이다 보니 선수 생활에 지장이 올라 걱정하기도 했고, 행여 시간이 아까운 시기가 아닐까 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산에 몸담아 보니 기우였습니다. 박성관 대표이사님 이하 프런트들이 원 소속팀 프런트 못잖게 지원해주셔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동혁 감독님 이하 코칭스태프, 동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기쁩니다. 이분들과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승격하길 지원하겠습니다.”



NO. 20 김동철 MF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갑니다. 전역해서 기분은 좋는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 아쉬움도 느낍니다. 후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선임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해결책이 나와 선수들이 편하게 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기다려준 여자친구, 늘 아들을 믿어주시는 부모님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 소속팀 서울 이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아가면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O. 30 김현 FW

“박동혁 감독님을 비롯해 팀 코칭스태프, 박성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프런트, 그리고 아산 팬들과 서포터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경찰 신분이기 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아산은 정말 잊지 못할 팀입니다.”



KEB 하나은행 K LEAGUE 2 30R

2018. 9. 29(토). 19:00 이순신 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VS



수원
FC



HEAD COACH

박동혁 감독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로 뭉쳐 뚫고 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더 많은 걸 보여줄 것이다. 기대해달라”



KEY PLAYER

NO. 39 민상기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매 경기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결실하게 승부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

K리그2 정상을 향한 살얼음판 레이스가 점입가경이다. 순위표 상 아산과 성남의 위치가 매 라운드가 거듭될 때마다 얹치락뚱치락하고 있다. 쫓고 쫓기는 경쟁 구도를 이지는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 29라운드를 소화한 현재 아산은 승점 2점 차로 앞선 선두(승점 54점)를 달리고 있다. 최종 라운드까지 일곱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제 남은 경기는 곧 결승전이라 봐도 무방하다. 30라운드 수원 FC전이 중요한 이유다. 아산은 2018시즌 내내 수원 FC에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3전 전승을 거두었으며, 다섯 골을

터뜨리는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아산은 객관적 전력상 수원 FC에 크게 앞선다는 걸 지난 경기 결과를 통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승부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철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한 판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이 경기를 끝으로 아산 유니폼을 벗게 되는 여섯 전사들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2018 K리그2 팀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아산	54	15	9	5	41	23
2	성남	52	14	10	5	41	31
3	대전	45	13	6	10	37	34
4	부산	42	10	12	7	42	30
5	광주	36	8	12	9	36	32
6	수원FC	36	11	3	15	23	35
7	부천	35	10	5	14	33	40
8	안양	34	9	6	14	35	42
9	안산	33	9	6	14	28	35
10	서울E	30	8	6	15	25	39

2018 K리그2 아산 팀 내 개인 기록



최다 득점

FW 고무열

6

GOALS



최다 도움

MF 조성준

6

ASSISTS



최다 출전

MF 김종국

28

PLAYED

온양농협
(구)아라 한방 육가공
선문대학교
soribada
아산중무병원
아산우체국

아산축산농협
한우사랑
fizz 피츠 수퍼클리어
돈포농협
아산가톨릭정형외과의원
Wefoot Technology

NH 아산원예농협
emc 아산시물환경센터
UL·OS
영인농협
Paradise Spa D O G O
Red Bull

신창제지공업(주)
호서대학교
FM7 아산점
KFC
밝은신안과
아산시체육회

윤가네 옛날 통닭
신정콩나물해장국
대광셀프주유소
신도봉이 아산점

동구식자재마트
기와집식당
아산 리버뷰
삼천리자연기원화점
국향 아산점

시우사슴농장
풍기반점
드림디포
강남라인 성형외과 / 피부과 의원

우당 아산용화점
육♥해 용화점
한국정보컨설팅
개성점